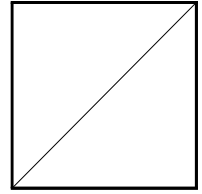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65 호
보 고 년 월 일	2022. 12. 14. (제 22 차)

보
고
사
항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개정’ 결과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연월일	2022. 12. 14.

1. 보고주문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개정’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요내용

① 소규모비상장 기업의 비외감 기업 연결 면제(시행일과 경과규정)

- **(배경)** K-GAAP 개정('18년)으로 비상장사(모기업)에게 모든 종속기업 (非외감기업도 포함)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발생*('22년)
 - * (기존) 非외감대상 종속기업은 연결을 면제하고 외감대상 종속회사만 연결
- 규모가 작고,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까지 IFRS와 동일한 모든 종속회사 연결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이해관계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개정)** 이해관계자 특성과 기준 개정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소규모비상장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중 규모가 작은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함

<K-GAAP 개정 후 비상장사 연결범위 변화>

구분	기존('18년 이전)	현행('22년)	개선	
대상	■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대형 비상장사	기타 비상장사
연결 범위	■ 외감대상 종속기업	■ 외감대상 종속기업 + 非외감 종속기업	현행과 동일	非외감 종속기업 연결의무 면제

②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문단 3.20)

- (중전) 현행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현금흐름표에서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
 - 금융업 회사 중 은행의 경우 고객의 예·적금 예치 및 대출채권 등은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 일반적으로 고객 예수금은 대출채권(영업활동 현금유출)과 함께 증가하나 고객 예수금의 수신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경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
- (개정)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변경 및 명칭을 수정하고, 문단 일부분을 어법에 맞게 재기술
 -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였던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를 '고객 예수금의 수신'으로, '예수금의 반환'을 '고객 예수금의 반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 문단 일부분을 어법에 맞게 재기술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예시를 보완함

③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문단 17.7)

- (중전) 현행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 * ① 대응비용 존재 여부, ② 주된 영업과 직접 관련성, ③ 특정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구분
 - 개발 지출은 최종적으로 영업비용에 해당하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선택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보조금 예시를 삭제하고 영업손익 표시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시행일

- ☐ (소규모비상장 기업의 비외감 기업 연결 면제)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음
- ☐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수익관련보조금)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4.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종전 실무해석 상 논란소지가 해소되고 경제적 실질을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 시 복잡한 판단이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1) 소규모비상장 기업의 비외감 기업 연결 면제

- ☐ 2022. 10. 7.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 2022. 10. 11. ~ 2022. 11. 11.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 2022. 12. 2.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 ☐ 2022. 12. 12.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보고 : 원안대로 접수

(2)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수익관련보조금

- ☐ 2022. 6. 17.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 2022. 6. 24. ~ 2022. 7. 29.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 2022. 9. 16.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 ☐ 2022. 12. 12.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보고 : 원안대로 접수

나. 관련법규 <붙임 1>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별지>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2. 9. 16., 12. 2.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8
시행일 및 경과규정	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문단 3.20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되는 반면, 또한,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 예수금의 수신,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고객 예수금의 반환,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중략)...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자기주식의 처분 포함) 등이 포함된다.

(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3.6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 예수금의 변동은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예: 상호저축은행),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개정('22년) 하였다. (문단 3.2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태우되는 비용이 없는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배출가격이 배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의 부록

실무지침

실17.6 문단 17.7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하여금 배출가격이 배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매출원가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도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문단 17.7)

결론도출근거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결17.1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에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한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17.7에서는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하였으나, 문단 17.3에서 기술하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와 차이가 모호하여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도 있고 각 용어를 구분할 실익이 적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17.7에서 이러한 표시 방법 구분 대신에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문단 17.7)

결17.2 개정 전 문단 17.7의 예시에서는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고 기술하였다. 연구·개발 지출은 발생시점이나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예시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개정 전 문단 17.7에 따르면 개발 관련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17.7에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표시에 대한 예시를 삭제하였다. (문단 17.7)

결17.3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구개발 지원 목적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이라면 문단 17.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수익관련보조금이라면 수익으로 표시할지 아니면 관련비용(예: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문단 17.5, 17.7)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9. 16)’과 문단 1과 2 및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12. 2)’와 문단 1~3, 실1, 결1~결3을 추가한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9. 16.)

시행일

- 1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2년,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수익관련보조금)에 따라 문단 3.20과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12. 2.)

시행일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1),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4)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1)~(3)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 2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경과규정

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실1 문단 1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외감기업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문단 8.7~8.13). 다만, 동 문단의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31.6).

결1 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지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소규모 이해관계자 특성과 기준 개정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지배하는 피투자기업 중 규모가 작은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2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 문단 3의2에서는 외감법령의 개정 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 외감법령에 따른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을 기술하였다. 동 문단 3의2(1)~(8)에서 가리키는 기업은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외감기업이고, 동 문단 3의2(9)~(11)에서 가리키는 기업은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이다. 시간이 경과되어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소멸됨에 따라, 종전 외감법령에 따른 동 문단 3의2의 기업들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에서 제외하고, ‘(現)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외감기업만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으로 개정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재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기준이어야 하며, 종전 외감법령에 따라 비외감기업이어서 종속기

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이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가 증가하여 현행 외감법령에 따라 외감대상 기업이 된 경우에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3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 지배기업에 한하여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12.31.)'의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의 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②~③ (생 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②~⑦ (생 략)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4. (생 략)

5. 법령 또는 고시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회계 또는 외부감사 관련 기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제29조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회계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
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
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
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자본시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조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⑩ (생 략)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
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⑬ (생 략)

제5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① 한국회계기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
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
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내용 및 외부 의견청취 결과

2. 제1호와 관련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의사록

②~③ (생 략)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현행) 일반기준 제3장	(최종안) 일반기준 제3장
<p>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p> <p>(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p> <p>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p> <p>(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 (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p>	<p>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또한,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p> <p>(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u>고객 예수금의 수신</u>,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p> <p>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u>고객 예수금의 반환</u>,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p> <p>(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 (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p>

(현행) 일반기준 제3장	(최종안) 일반기준 제3장
<p>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p> <p>(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p> <p>(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u>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u> 등이 포함된다.</p> <p>(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u>예수금의 반환</u>,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p>	<p>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p> <p>(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p> <p>(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u>자기주식의 처분 포함</u>) 등이 포함된다.</p> <p>(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p>
<p>결론도출근거</p> <p><신설></p>	<p>결론도출근거</p> <p><u>결3.6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 예수금의 변동은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예: 상호저축은행),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개정('22년) 하였다 (문단 3.20)</u></p>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현행) 일반기준 제17장	(최종안) 일반기준 제17장
<p>17.7 수익관련보조금은 <u>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u></p>	<p>17.7 수익관련보조금은 <u>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u></p>
<p>실무지침</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실무지침</p> <p><u>실17.7 문단 17.7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매출원가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도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문단 17.7)</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결론도출근거</p> <p>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p>

(현행) 일반기준 제17장	(최종안) 일반기준 제17장
	<p>결17.1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에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한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17.7에서는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하였으나, 문단 17.3에서 기술하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와 차이가 모호하여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도 있고 각 용어를 구분할 실익이 적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17.7에서 이러한 표시 방법 구분 대신에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문단 17.7)</p>
<신설>	<p>결17.2 개정 전 문단 17.7의 예시에서는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고 기술하였다. 연구·개발 지출은 발생시점이나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예시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개정 전 문단 17.7에 따르면 개발 관련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17.7에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표시에 대한 예시를 삭제하였다. (문</p>

(현행) 일반기준 제17장	(최종안) 일반기준 제17장
	<u>단 17.7)</u>
<신설>	<u>결17.3</u>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구개발 지 원 목적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 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이 라면 문단 17.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수익관련보조금이라면 수익으로 표시할 지 아니면 관련비용(예: 판매비와관리비 의 연구비,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익 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 과 표시 1’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문단 17.5, <u>17.7)</u>

시행일 및 경과규정

(현행) 시행일 및 경과규정	(최종안)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신설>	<p><u>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9. 16.)</u></p> <hr/> <p><u>시행일</u></p> <p>1 <u>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2년,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수익관련보조금)에 따라 문단 3.20과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신설>	<p>2 <u>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u></p>
<신설>	<p><u>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12. 2.)</u></p> <hr/> <p><u>시행일</u></p> <p>1 <u>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1),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u></p> <p>(2) <u>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u></p> <p>(3)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u></p> <p>(4) <u>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1)~(3)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u></p>

(현행) 시행일 및 경과규정	(최종안)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신설>	<div>2</div> <div>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div>
<신설>	<div>경과규정</div> <div>3</div> <div>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div>
<신설>	<div>실1</div> <div>문단 1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외감기업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문단 8.7~8.13). 다만, 동 문단의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31.6).</div>

(현행) 시행일 및 경과규정	(최종안)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신설>	<p><u>결1</u> 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지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소규모 이해관계자 특성과 기준 개정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지배하는 피투자기업 중 규모가 작은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p>
<신설>	<p><u>결2</u>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 문단 3의2에서는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 외감법령에 따른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을 기술하였다. 동 문단 3의2(1)~(8)에서 가리키는 기업은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외감기업이고, 동 문단 3의2(9)~(11)에서 가리키는 기업은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이다. 시간이 경과되어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소멸됨에 따라, 종전 외감법령에 따른 동 문단 3의2의 기업들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에서 제외하고, ‘(現)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외감기업만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으로 개정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재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기준이어야 하며, 종전 외감법령</p>

(현행) 시행일 및 경과규정	(최종안) 시행일 및 경과규정
	<p>에 따라 비외감기업이어서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이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가 증가하여 현행 외감법령에 따라 외감대상 기업이 된 경우에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p>
<신설>	<p><u>결3</u>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xx.)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 지배기업에 한하여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u>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u>’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u>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12.31.)</u>’의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다.</p>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